

# GSK, Pfizer 잡기위해 대형 인수

## 2001년 매출 GSK 248억달러에 Pfizer 255억달러 ... BMS 유력후보

400억달러에 달하는 Pfizer/Pharmacia 거래에 기가 죽은 제약기업들이 대형 제약기업들의 인수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laxoSmithKline이 Pfizer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Pfizer는 Pharmacia를 인수하기 전 전문의약품 매출이 2001년 255억1800만달러로 GlaxoSmithKline의 247억8100만달러를 간신히 앞질렀다.

Merck 또한 Pfizer/Pharmacia 인수에 영향을 받았다. Merck는 2001년 전문의약품 매출이 213억5000만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했는데, Pfizer-Pharmacia가 Merck의 Vioxx(Rofecoxib)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Celebrex 및 Bextra의 판촉을 강화함에 따라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Merck는 독립기업으로 남아 혁신을 통한 유기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Merck Medco를 분사키로 하는 등 M&A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S(Bristol-Myers Squibb) 또한 M&A 후보이다. BMS는 앞으로 5년간 성장전망이 저조하고 파이프라인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등록상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Sanofi-Synthelabo, Plavix (Clopidogrel) 및 Avapro(Irbesartan/Hydrochlorothiazide)와 같은 주요 전략적 브랜드의 관리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약 매출액 전망 비교(2002-2007)

(단위: 100만달러, %)

회사명	치료분야	2002	2004	2007	증감률*
Bristol-Myers Squibb	감염성 질병	2,730	3,445	4,776	11.8
Eli Lilly		813	808	1,125	6.7
Wyeth		695	747	828	3.6
GlaxoSmithKline		6,470	5,819	5,276	4.0
AstraZeneca	위장병	6,345	4,616	4,880	5.1
Wyeth		1,363	1,685	1,036	5.3
Wyeth	백신	913	1,737	2,077	17.9
GlaxoSmithKline		1,507	1,709	1,913	4.9
Eli Lilly	Diabetes	2,385	2,905	3,114	5.5
AstraZeneca	기타	585	688	613	0.9
Bristol-Myers Squibb		1,698	1,886	2,256	5.8
Eli Lilly		1,388	1,995	3,146	17.8
Wyeth		1,789	2,903	3,964	17.2
GlaxoSmithKline		3,597	4,196	5,282	8.0

\* 2002-2007년 연평균

자료) Datamonitor

BMS는 파이프라인의 전망이 좋지 않으나 매출 및 판매망이 튼튼하고 미국 접근도가 높아 유럽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Novartis는 미국시장에 침투하고 암 치료약품을 확대하는 데 BMS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Wyeth(American Home Products) 또한 예상 인수대상이다. Wyeth는 R&D 생산성이 낮지만 중단기 성장전망이 건실하며 성숙한 포트폴리오는 M&A를 통해 원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Eli Lilly 및 AstraZeneca는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수입격차를 커버는 방법으로 M&A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li Lilly는 역사적으로 합병에 부정적이었고 AstraZeneca는 콜레스테롤 경화제인 Crestor(Rosuvastatin)로 미국에서 Merck 및 Pfizer와 대접전을 벌일 전망이나 불리한 입장이다. Eli Lilly 및 Astrazeneca는 인수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제약기업의 타겟이 되고 있다.

GlaxoSmithKline은 Pfizer/Pharmacia의 통합기업과 보조를 맞추고 개발 및 매출을 강화하기 위해 M&A를 벌일 것으로 유력시되는데, Astrazeneca를 인수하면 호흡부전 치료제를 통합하고 중추신경 및 암 치료약품을 강화할 수 있다. Eli Lilly는 정신병 치료약품 분야가 들어맞고 인수 후 미국 및 일본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BMS는 GlaxoSmithKline과 마찬가지로 성장 전망이 좋지 않고 비등록상표의 위험이 높으며 R&D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없고, Wyeth 또한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Glaxo-SmithKline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06>